experience
Life As Mission
156th. Summer. 2025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터서브 프렌즈

Interserve

타문화권과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필독서

지역교회를 위한 세계 선교 특강

김한성, 김상철, 홍문수, 오승수, 이재화, 이상협, 송기태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한국 교회의 선교적 감수성을 깨워온 '함께 하는 선교 네트워크(함선네)'. 지난 4년간의 귀한 선교 세미나와 온라인 훈련의 결실이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지역 교회를 위한 세계 선교 특강》은 선교사와 목회자의 통찰, 생생한 현장 이야기,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깊은 성찰을 담은, 지역 교회를 위한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안내서입니다. 단순한 강의록을 넘어, 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이 책은, 예배부터 단기 선교, 선교사 협력, 선교위원회 운영까지 지역 교회의 선교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열방을 품는 뜨거운 여정을 시작하길 바라며, 이 책이 그 길에 선명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매처: 주요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과 전국 기독교 서점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04 하나님을 더 넓고, 깊게 만나는 인터서브 사용설명서 _ 공갈렙 대표

특집 인터서브 사용설명서

08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_ 셀리나 매니저

12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는 이정표 _ 김영일 선교사

15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뤄가는 선교 _ 위나라 선교사

18 선교 여정의 완주를 돕는 동반자 _ 서눔바 선교사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21 미션얼 패밀리1 : 도전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_ 이태성 온트랙커

24 미션얼 패밀리2 : 인터서브에서 15년! _ 송기태 선교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28 인터서브 필드 : 태국
선교적 관점에서 본 사역의 기회와 도전 _ 김요엘 선교사

30 인터서브 스토리 : 태국
매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_ 김요엘 선교사

36 마음을 잇다, 사랑을 나누다 : 인터서브 공동체 소식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인터서브 칼럼

하나님을 더 넓고, 깊게 만나는 인터서브 사용설명서

공갈렙 대표

코로나19로 정신없던 시기, 온 세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교회에선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사역이 중심이 되었고, 학교 수업도 모두 온라인 환경에 맞춘 교육으로 바뀌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터넷 도구 활용을 배우느라 너도나도 분주했고, 나도 부족한 IT 실력 탓에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배울 때는 사용설명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 입장에서 다소 낯선 '선교단체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필요해 보인다.

수도원 운동과 교회의 쇄신

먼저,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2025년 현재, 교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선교단체는 교회와 어떤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할까? 나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선교를 이끈다고 믿는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쩌면 이제는 선교가 교회를 견인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역사신학자 마크 놀은 "수도원 제도의 발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가장 유익한 제도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로마제국으로부터 국교로 인정받은 기독교는 이후 제국의 권력과 밀착하며 제도화된 반면, 그 틀 밖에 있었던 중부 유럽,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는 겸손과 청빈을 실천한 헌신된 수도사들이 곳곳에 수도원을 세워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 이 수도원들은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고, 동시에 제도화되어 건강성을 잃어가던 기존 교회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수도원 영성과 선교는, 선교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볼수 있다.

이런 고민 앞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위한 선교단체, '인터서브 사용설명서'를 풀어보려 한다.

1. 본질을 향한 헌신

최근 몇 년간 인터서브는 지역교회를 선교적으로 세우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올 상반기에도 변함없이 서울, 분당, 대구, 포항, 안성, 중국, 인도, 미국 등에서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한 선교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다. 선교적 성경읽기를 기초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해외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재확인하게 된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헌신한다. 교회의 건강성은 이렇게 선교단체를 통해 활발해진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인터서브가 규모에 비해 힘에 진하

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선교학교를 진행했던 여러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타문화 선교에 더 많이 헌신하고, 지역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일터와 삶터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헌금을 늘리고, 무슬림이나 타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다가가는 일을 실천하며, 주일학교를 선교적 교육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감동을 느낀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통치를 삶 전 영역에 확장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본질을 잃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2. 하나님 나라의 선교 동역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선교사 집단**이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지리적, 문화적 제한이 있다. 그런 제한을 넘어 확장된 선교는 선교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교단체는 교회의 일부로서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며,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돕는 파트너이다. 지금도 아시아와 아랍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인터서브는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세계교회와의 파트너십"**과 **"총체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약 200명의 인터서브코리아 장단기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인터서브의 장기 선교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사역하고, 단기 선교사들은 타문화 선교 경험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인터서브는 국제 선교단체로 다국적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기회가 있다.

- **인터서브와 동역하는 방법**
  1. 열방을 섬기는 온라인 기도 참여하기 : 매달 마지막 주 월 저녁 8시
  2. 다양한 인터서브 선교 학교 참여하기 : In2serve, ASME 스쿨, i-LAMS 등
  3. 삶터와 일터에서 본인의 선교적 고민을 함께 할 동역자를 만나기 : 선교적 숲
  4. '인터서브 펠로우'나 '프렌즈'로 선교사들과 동역하기

더 나아가 지역교회가 인터서브와 함께 지역 내 이주민 사역과 선교교육을 공동 주관할 수 있으며, 해외 타문화 선교를 함께 동역할 수도 있다. 선교사 자녀(MK)를 섬기는 일에 동역할 수도 있다.

3. 교회 밖 세상에 대한 선교적 탐구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요 17:15-16). 이는 곧,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동시에 그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뜻이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마 5:13-16)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선교단체는 이러한 역할을 지리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수행한다. 교회 밖 세상을 탐구하는 이유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선교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직장, 학문, 가정, 지역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와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선교적 탐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터서브는 이러한 선교적 탐구의 최전선에서 함께 고민하며 동역하는 단체이다. 실제로 인터서브코리아가 진행하는 선교학교와 사역을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학업이 하나님의 선교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직장과 학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선교의 현장으로 변화시킨다.

최근 한 대학생이 선교훈련 소감 발표에서 이원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실천하겠다는 고백을 들었다. 이런 변화를 목도하는 것이 선교사의 보람이 아닐까?

삶에서 선교를 실천한다면 굳이 해외 선교에까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일상 속 선교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더 깊이 복음이 절실한 지역과 사람들을 향해 확장된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확장성을 지닌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상에서 시작된 선교는 해외로, 다른 문화와 민족에게 확장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의 삶이다. 교회 밖 세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변화된 개인이 교회의 건강한 변화를 추동하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싶다.

인터서브 장기 선교사 : 파트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셀리나 매니저

인터서브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터서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름받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 삼는 분들을 동역자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를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인터서브가 찾는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 **예수를 본받아 제자로 살려는 사람** : 선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터서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분들을 찾습니다.
-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 선교 현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서브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 **타문화에서 살고 이해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 :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넘는 사역입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적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하려는 사람** : 인터서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총체적 선교'를 지향합니다.
- **타문화권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려는 사람** : 관계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분들을 찾습니다.

인터서브 파트너가 되는 여정

1차 심사	2차 심사 및 허입 결정	훈련 및 개발	파송 준비	파송
첫만남 인터뷰(1차) 첫만남 인터뷰(2차)	서류 심사 / 검증 (1차) 인사위원회 인터뷰(2차)	인터서브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영어훈련 해외 다문화훈련 신학교 성경 · 선교 과정 이수	파송지 최종 확정 파송교회 확정 배치 영어 기준 통과 재정 / 메디컬 클리어런스	인터서브 파송식 파송교회 파송 예배

1. 인터뷰

인터서브에 관심을 표현하신 분들은 두 차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서브의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고, 동시에 인터서브도 지원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앙과 선교 비전, 그리고 인터서브 파트너로서의 적합성을 함께 탐색합니다.

2. 허입 심사 과정

연 2회(여름, 겨울) 진행되는 허입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서류 심사와 검진(건강, 심리, 정신), 추천인 인터뷰, 자기 소개, 신앙 간증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인터서브 허입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3. 캔디데이트 스쿨과 훈련

허입 이후에는 2주간의 캔디데이트 스쿨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선교훈련, 영어훈련, 인터서브 총체적 선교 훈련(LAMS, 텐트메이커 스탠다드 스쿨 등) 등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캔디데이트 스쿨은 신입 선교사님들을 위한 온 가족 캠프입니다. 보통 4박 5일의 일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MK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캔디데이트 스쿨의 목표는 인터서브와 인터서브의 선교 가치와 삶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의 배경, 여정 및 생각을 정직하게 나누며, 동시에 참석자 상호간 이해를 넓히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4. 파송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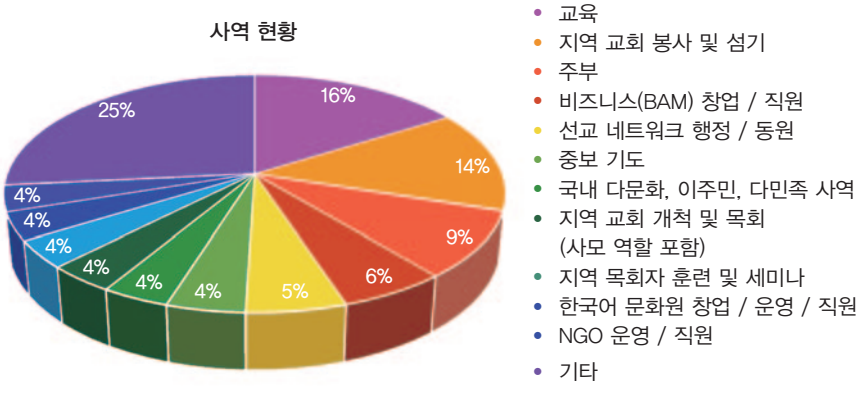
파송 준비 과정에는 선교 훈련, 영어 훈련, 인터서브의 총체적 선교 훈련, 그리고 무슬림권 사역을 위한 특화된 무슬림 선교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파송 교회와 인터서브는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정립하고, 선교사가 재정적 ·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파송 전까지 코호트 그룹의 정기 모임을 통해 인터서브와의 관계성을 더욱 깊이 있게 다져 나갑니다.

5. 파송

인터서브에는 재정 건강성, 신체적/정신적 건강성, 필요한 훈련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파송 시기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현지 필드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파송 날짜를 결정하고 교회와 공동체의 파송식 후, 선교사를 현지로 파송합니다.

장기 선교사 허입 및 파송 현황

인터서브는 전통적으로 전문인 선교 단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현재 인터서브 파트너 196명(109 유닛)의 사역들을 기반으로 보면 아래 도표와 같이 교육, 지역 교회 봉사, 주부, BAM, 지역 교회 관련, 다문화/이주민 사역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코리아에서 파송 받으신 선교사들은 아시아와 아랍의 총 28개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선교의 여정

인터서브는 ‘삶으로 이어쓰는 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삶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일을 ‘선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선교적 도전 속에서, 인터서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새로운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37-38)

문의 : 인사 담당자 셀리나 매니저 / opmanager.isk@gmail.com

인터서브 단기 선교 : 온트랙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는 이정표

김영일 선교사

아이 셋의 소란스런 하루,
일에 치인 엄마의 노트북에 장난감 비행기가 꽂힌다. 한숨.
문득 벽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이 바다 앞에서 손짓한다.
그리고 뜨는 자막. "도망가자"

'여기어때'라는 국내의 한 여행 플랫폼 회사가 2021년 여름 공개한 광고 시리즈 중의 하나입니다. 고된 일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도망가듯 떠난 여행이 삶의 가치를 찾게 한다는 이 캠페인은 시청자의 큰 공감을 얻어, 그 해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TV영상 부문 동상을 받았습니다. 여행의 '특별함'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이상 떠나는 단기선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번쯤 품어보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영적으로 충전받고, 삶의 달란트를 감사로 올려드리려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단기선교는 여행처럼 특별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단기선교는 단순히 '잠시 다녀오는 경험'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선교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서 당신의 선교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나의 여정에서 사역의 형태나 목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기선교는 그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바다를 바라보는 엄마의 한숨처럼 위로를 주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 특별한 은혜를 새기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여정은 선교의 한 장면이 됩니다. 이 특별한 삶의 전환의 과정을 인터서브 온트랙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트랙 (On Track)

전 세계 41개국, 800 여 명의 인터서브 선교사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온트랙은 이 선교 현장에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단기선교의 기회입니다.

온트랙은 단순히 장기선교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며, 선교적 삶의 방향을 함께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온트랙으로 섬길 수 있는 영역들

분야	예시
교육	지역학교 교사, 영어캠프, 교사 훈련 등
지역사회 개발/NGO	식수 개선, 인권 보호, 마을 프로젝트
의료/보건	병원 행정지원, 보건교육, 물리치료
환경	지속가능한 농업, 재활용 시스템 구축
교회/기독교 사역	제자훈련, 주일학교, 예배 인도
기타	비즈니스 등

온트랙의 여정

1. 문의 및 상담	온트랙 코디네이터와 면담을 통해 사역 기회를 탐색
2. 준비 과정	인터서브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고, 선교적 삶을 위한 훈련 참여
3. 허입 절차	사역에 동참할 재정 후원자, 기도 동역자, 파송 교회와 함께 여정 시작
4. 현지 조율	사역지 리더십팀과 입국, 정착, 생활에 관한 실무 협의
5. 출발	정해진 사역지로 파송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역 시작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장기선교를 고려하고 있는 분
- 선교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
-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선교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
-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싶은 시기에 있는 분

온트랙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지금 제 상태로는 선교를 할 수 없지만, 이번 온트랙 과정을 통해 다시 선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은 자신이 '선교할 자격이 없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거겠지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조용히 이렇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안에서, 당신은 이미 온트랙(on track),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쯤 있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당신의 삶 자체를 기뻐하며, 그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해봅시다.

인터서브 소개 영상의 말처럼, '선교는 새로고침이 아니라 이어쓰기'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부르심도 선교의 이어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서브 온트랙과 함께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온트랙 문의 : 온트랙 코디네이터 김영일 선교사 /
010-3906-5541 / otisvkorea@gmail.com

인터서브 교회관계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뤄가는 선교

위나라 선교사

인터서브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부모는 키우면서 이름의 의미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아이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름은 세상 속에서 나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Interserve는 'International Service Fellowship'을 축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약하고 소외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모든 교파와 모든 세대와도 동역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전달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ekklesia입니다.

에수님은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인터서브는 교회가 선교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선교사(파트너Partner)를 위탁 받아서 파송하고 관리하는 일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더욱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고, 선교 현장에서는 그 지역 교회가 잘 성장하고 직접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섬깁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적 삶의 이해를 돕는 LAMS(Life As Mission School, 10주)와 총체적 선교를 배우는 인투서브(In2Serve School)를 통해서 성경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LAMS 안내 & 신청

선교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다.

인터서브는 또한 하나님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자원이 필요한 지역교회가 있다면 아낌없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를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서브 선교사는 보내는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교회에 선교사의 신앙, 인사, 재정, 위기관리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함께 고민하며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인터서브가 진정 꿈꾸는 모델은 모든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행정을 위한 지역교회 선교행정가 모임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부름 받은 종으로서의 신실함

인터서브가 추구하는 선교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 – 하나님을 의지함, 파트너십, 공동체, 온전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총체적, 종 된 섬김 – 은 특별한 것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직하고 겸손하며 섬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선교지에서는 현지인과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존중하고 섬겨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Coram Deo의 신실한 삶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당신이 바로 인터서브와 함께 할 파트너입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용기

선교지에서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박해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지 신자들과 교회입니다. 인터서브 파트너는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전문성(목회, 비즈니스, 의료, ICT, 디자인, 스포츠, 문화 등)을 사용

해 우리의 사역적 성과가 아닌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을 사역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사역의 결과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터서브와 함께 타문화 선교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터서브가 당신의 순종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관계 문의 : 위준열 선교사 / church.isk.kr@gmail.com

인터서브코리아 멤버케어

선교 여정의 완주를 돕는 동반자

서눔바 선교사

선교는 단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여정입니다. 인터서브코리아 멤버케어팀은 이 여정을 살아가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영적·정서적·육체적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동행합니다. 선교 현장의 예기치 못한 위기, 반복되는 이별과 적응, 외로움과 소진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왜 이 길을 걷는가'라는 부르심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인터서브코리아 멤버케어의 목적

선교사들이 삶의 전 영역(영적,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에서 균형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가도록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보고,
서로 돌봄의 문화를 만들며 자기 돌봄과 서로 돌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전 생애주기 동행

허입부터 은퇴까지, 한 사람의 선교사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단기 위로가 아닌 장기적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버텨내는 돌봄'을 실천합니다.

본부 간 협력 & 실시간 소통

멤버케어팀 4인은 각자 책임 사역을 맡되, 필요시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도하며 협력합니다. 정책 수립과 긴급 이슈 대응 시 대표 및 본부 내 타 부서(재정, 인사, 교회관계 등)와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돌봄을 실현합니다.

전문기관 및 네트워크 협력

상담센터, 병원, 협력단체, 지역 교회 등과의 연결을 통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해외 필드의 지역 리더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사역 구분	구체적 사역 내용
선교사 지원 사역	**귀국 및 재적응 지원** • **본국 사역 안내 및 건강검진 예약** 귀국 시 필요한 행정 안내와 건강 관리 지원 • **디브리핑 및 위기 관리** 선교지 경험 정리와 감정 · 신앙적 회복을 위한 시간, 필요시 전문가 상담 연결 • **안식관 예약 및 위기 시 즉각적 대응** 쉼이 필요한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 안내 및 돌발 상황 대응 • **선교지 방문 및 전환기 사역자 지원** 국가 이동, 사역 변경 등 전환기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안내 • **공항 배웅, 증명서 발급 등 실무 지원** **공동체적 돌봄 실천** • **경조사, 기도회, 세미나 참여 및 공지** • **여름 패밀리캠프 / 허입 선교사 훈련 & 오리엔테이션** 선교사 가족 및 새내기 선교사들을 위한 적응과 회복의 장 • **은퇴 · 사임 선교사 송별회 및 정책 안내** 사역의 마지막까지 존중과 감사를 전하는 이별의 시간 **특수 대상 선교사 지원** • **싱글 여성 선교사 '리디아 컨퍼런스' 운영** 고립되기 쉬운 싱글 여성 선교사를 위한 쉼과 회복, 나눔의 자리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자원 연결** • **멤버케어 재정 모금 및 후원자 소통** 선교사 돌봄을 위한 기도와 재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수행

사역 구분	구체적 사역 내용
MK(선교사 자녀) 지원 사역	• EMK 장학금 (Empowering MK): 경제적 지원을 통해 MK의 학업과 진로를 응원 • E2S 프로그램 (Empowering to Stand MK): 심리 · 정서적 훈련과 나눔을 통해 정체성 세우기 • 청년 MK DAY 및 기금 운영: 청년 MK들이 서로를 만나고 연결되며, 신앙 안에서 자기 삶을 세워가도록 격려 • 포근한 MK 호스텔 운영: 귀국하거나 학업을 위해 한국에 오는 MK들을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 제공
부모님 케어 사역	정서적 위로와 동행 • 정기 전화 심방 • '감사와 위로의 날' 본부 초청 행사 감사의 표현과 실질적 섬김 • 어버이날 · 추석 선물 전달 • 부모님 방문 시 식사 섬김

멤버케어팀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 일상의 섬김을 살아내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선교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미션얼 Family 1

도전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태성 온트랙커

Q1 인터서브와는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음의 친구 서은경 선교사가 인터서브로부터 파송받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인터서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Q2 온트랙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 사실 오랫동안 해외 선교사의 삶을 꿈꿔왔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 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환갑이 지난 어느 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잊고 지냈던 선교의 꿈이 다시 떠올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내가 과연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2년간 준비 끝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터서브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 '온트랙'을 알게 되었고, 과감히 명예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인터서브와 함께 제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한국어 교육 사역이 필요한 베트남과 연결되었습니다.

Q3. 선교지에서 일상과 사역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베트남 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 복음에 대한 제약이 훨씬 큽니다. 법적으로는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예배나 모임에도 외국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헌신한 젊은 베트남 사역자들을 만나 식사를 나누고, 매달 작게나마 후원할 수 있었던 일이 참 의미있었습니다.

저는 교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처음엔 NGO 학교에서 초중등학생들을 가르쳤고, 나중엔 그 학교 교사들에까지 수업이 확장됐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한글 수업

화요일엔 현지 회사 직원들에게, 목요일엔 중급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랑방을 운영했습니다. 그중 세 명의 학생은 지금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고, 한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 동호회 활동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 대학생 사랑방 수업

▲ 탁구 동호회

Q4. 온트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 시골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겠다고 모여든 베트남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기뻐하는 아이들의 미소를 기대하며 간식을 준비하던 시간,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사역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나눈 교제의 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Q5. 경험해보신 온트랙의 매력은 어떤 것인가요?

》 이론이나 책 속의 학습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장 사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낯선 문화를 만나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현지인들과 교제하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많은 자기 성찰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과의 교제와 나눔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도전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Q6. 온트랙 전 후로 '선교'에 대해 바뀐 관점이 있을까요?

》 온트랙 이전에는 '선교'란, 선택받은 헌신된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온트랙 이후에는 누구나, 어디서든,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이고, 사역지이며, 예배처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는 선교가 고등수학 방정식처럼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구구단처럼 쉽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Q7. 앞으로 자신이 꿈꾸는 선교적 삶은 어떤 것일까요?

》 낯선 환경과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선교적 삶의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선교는 결과가 아닌 과정, 혼자가 아닌 함께, 이론이 아닌 실천, 허상이 아닌 일상입니다. 제가 꿈꾸는 선교적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 수고와 인내로, 기쁘게!

더 자세한 인터뷰는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세요.

미션얼 Family 2

인터서브에서 15년

송기태 선교사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됨

나와 아내가 인터서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미안하게도 인터서브에 기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미국 달라스에서 7년 가까이 살았고 나는 '미션 달라스'의 총무로서 사역했다. 사역이 꽤 잘 되어간다고 생각할 무렵 우리 가족은 비자 문제로 미국에서 나가야 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달라스로 가서 '미션 달라스' 사역과 네 자녀들이 그 곳에서 학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정마태 당시 인터서브 한국 대표를 만났고 인터서브에 무사히 허입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나의 경력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 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대신 나는 인터서브 본부에서 '교회 관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로 아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왜 아니겠는가? 나 자신도 그 때는 인터서브 본부 사역에 큰 기대감은 없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마침 그 시기, 인터서브 국제 본부에서는 'Reload" 프로젝트를 통해 5가지 사역 방향을 새롭게 설정 중이었다. 그 중의 하나가 "Walking with the church"였다. 이는 그동안 인터서브가 사역 현장에서는 현지 교회들과 잘 동역했지만, 보내는 본국 교회들과 관계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나는 청년 때부터 20년간 '교회의 선교'를 개발하는데 참여해 왔다. 인터서브에서 이 분야의 사역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면서 재야에서 일하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전 3:1-8).

파트너 교회들과의 관계

본부에서 '교회 관계팀'을 만들고, 현장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파송 교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선교사는 당시 우즈벡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노경국 파트너였다. 그의 파송 교회인 길벗교회의 선교부 멤버들과 만나면서 선교학교를 기획했다. 그 후 몇 년간 길벗교회에서 선교학교를 진행했고 이 경험이 서울의 예닮교회, 분당의 사랑과 은혜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선교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가장 즐거운 경험은 새롭게 허입하는 신입 파트너들의 파송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선교단체가 먼저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에 많은 교회들이 신선한 반응을 보였다. 허입 과정에서 파트너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리더십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파송한 파트너의 인사적인 문제로 매우 난감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일도 선교위원회와 같이 대화하면서 해결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 관계'란 단순한 행정이 아닌 성령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하다 왔니?

천국에서 주님께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없이 "선교학교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시절부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선교 학교'였다. 인터서브 교회 관계팀의 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기에는 주로 10주 정도의 지역 교회 맞춤형 선교 학교를 진행했다. 가장 오래 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높은뜻푸른교회'와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무슬림 사랑학교'를 기획해서 몇 년 동안 진행했다.

인터서브를 알리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개발하기 위해 '인투서브(in2serve) 선교학교'를 기획해서 몇 년 동안 진행했고, 잠시 중단했다가 현재는 매년 진행하고 있다.

LAMs(Life As Mission School)는 10여 년 정도된, 확장성이 가장 좋은 선교학교이다. LAMs는 분당 만나 교회와 '전문인 선교 학교(PMS)'를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성도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선교 학교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만나 교회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가 있었고, 그 후에 수원형제침례교회, 열방교회(경기도 광주) 등을 시작으로 선교한국 운동과도 연계되었다. 선교한국 대회와 몽골,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한인 선교사들에게도 쓰임을 받았고, 지금은 한국의 포항, 대구,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 2018년 만나교회 LAMS,

▲ 만나교회와 협약식

파트너십 사역들

인터서브 안에서 가장 도전이자 감동이 되었던 개념은 '파트너십'이었다. 그동안 선교 동원 사역을 해 오면서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로 이를 진지하게 실천하는 단체는 드물었다. 인터서브는 안팎의 경계를 넘으며 함께하는 사역이 가능했다. 인터서브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단체들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일이었다.

• **함선네**(함께 하는 선교 네트웍) :

이 모임은 6개의 교회와 선교단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지역 교회 선교부의 사역을 돕고자 6년 전에 시작했다.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서 선교부의 중요한 주제들을 강의하고 소그룹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 대구 지역에서는 '함선네 대구 모임'이 첫 열매로 형성되어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함선네가 공동

▲ 함선네(함께 하는 선교 네트웍)

저자로 그 동안의 내용을 '지역 교회를 위한 선교 특강'(세움 북스)이란 책을 출판했다.

- 선사모(선교적 교회 사역자 모임) : '선교적 교회 세우기'에 열정이 있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서로 배우는 기회를 위하여 4년 전에 이 모임을 시작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 몽골, 뉴질랜드, 대만, 영국 등에 멤버들이 흩어져 있다. 향후에 런칭할 '선교적 교회 연구소'(가칭)는 선사모를 모체로 시작할 계획이다.

아! 은혜의 15년이여!

나와 아내는 1996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몽골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그 일들은 대부분 4년 정도의 단위로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매번 맡겨주신 일들을 마칠 때 마다 감사함과 정리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번의 경험은 매우 달랐다.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을 15년 동안이나 해 내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밖에는 할 수가 없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동역한 많은 사무실 동료들, 선교 단체 동역자들,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부 지체들의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확신한다.

그동안 선교의 재야에서 선교운동을 해왔던 내가 인터서브 같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형적인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내 자신이 한 남성으로서 여성들을 위해, 여성이 세운 단체에서 일했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겨진다. 세상은 대부분 남자 중심의 공동체와 이야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인리히가 경험했던 티벳에서의 7년처럼, 나에게도 인터서브에서의 15년은 총체적인 선교, 섬기는 선교를 새롭게 배우는 은혜의 기회였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인터서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드린다.

인터서브 필드

태국: 선교적 관점에서 본 사역의 기회와 도전

김요엘 선교사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불교 국가로, 약 7천만 명의 인구 중 90% 이상이 상좌부 불교를 신봉합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기독교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회적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태국인=불교'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선교적 접근에 있어 섬세함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Thailand

태국 사회는 온화하고 친절한 국민성과 더불어,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face culture, 공동체 중심의 삶,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사회 구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마을 단위의 유대감이 강하여, 복음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교적 접근에 있어 장기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참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관광 산업과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고, 소수 부족민들과 이주 노동자, 특히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은 교육, 의료, 직업훈련 등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선교는 단지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전인적 회복holistic mission을 추구해야 하는 사역 현장이 됩니다.

선교적으로 태국은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약 1.5%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약 6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10~20년간 태국 전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수 부족 지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청년 세대는 SNS와 미디어를 통해 세계 문화에 개방적이며,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젊은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삶의 의미, 공동체, 진정한 평안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및 대학생 사역, 음악과 예술을 통한 창의적 선교, 영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한 관계 중심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교와 왕실 중심의 민족 정체성, 물질주의와 종교 혼합주의Syncretism 등이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태국 교회와 외국 선교사들의 연합을 통해 복음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선교는 단기적 결과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기도와 인내,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복음은 오늘도 태국 땅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스토리_태국

매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청소년학사 사역의 선교전략적 의의와 잠재력

김요엘 선교사

청소년학사 사역은 산간지역이 대부분인 태국 북부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특수한 선교적 기회입니다. 이 지역은 산간 지형 탓에 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매일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학사" 입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매땡캠퍼스의 청소년 학사에도, 태국북부 주요 3개 주인 치앙마이주와 치앙라이, 그리고 매홍손에서 온 85명의 학생들이 기숙하며, 인근 학교에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와 한국어, 음악과 미술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적 기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학생들과 매일 24시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역이 가능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온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역은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의 고향 지역과, 학생들이 매

일 통학하는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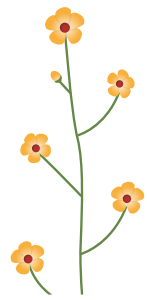
청소년학사 사역으로 인도하심

저희 부부가 매땡캠퍼스에서 청소년학사 사역을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015년 태국으로 파송된 후 5년간, 동남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던 중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1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안식년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 매땡캠퍼스 선교관이 비었다는 연락을 받고 2021년 10월 안식년 대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청소년학사에서 만난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영어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되었고, 저희 부부의 청소년학사 사역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큰 목표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 집에 찾아온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차츰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사역이 꽃피고 열매맺는 것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을 하며 기쁨과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청소년학사 사역의 열매와 성과

처음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어성경반은 남학생과 여학생반 두 개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어반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반은 12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개설하였으나, 열띤 참여로 인해 37명의 대형 강의가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 거의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초 · 중 · 고 단계와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일주일에 15개의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교실은 저희 부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 3개는 현지 사역자와 고3 학생들이 학생교사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에는 피아노와 기타를 가

▲ 음악캠프 ▼중고등 주일학교 남학생반

▲ 영어작문교실

르치는 음악교실, 수채화를 그리는 미술 수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 외에 외국어와 예체능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리더로 자라나도록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사역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와 학부형들의 좋은 입소문으로 인해 매땡 청소년학사는 매 학기 학생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2025년 5월 현재, 매땡청소년 학사에는 85명의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70%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매년 10~12명의 세례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진 데 기인합니다.

매땡청소년학사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치러진 전국 학업 평가에서는 인근 중학교 학생 8명이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그중 6명이 저희 매땡청소년학사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지역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저희는 공식적으로 학교 주요 행사에 초청을 받는 등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교육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소년학사의 몇몇 학생들과 함께 약 1개월간 한국 비전트립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 꺾이지 않도록 돕는 것,
> 귀하게 세워가는 것,
> 그리고 마침내
> 이 영혼들이 이 땅 위에
> 하나님나라를
> 이루어가는 것이
> 주님의 비전이자,
> 저희에게 주시는
> 분명한 명령임을 믿습니다.

▲ 2025년 새학기 예배

▲ 2024 세례식

의 다양한 체험, 문화탐방, 신앙훈련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고, 귀국 이후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삶에 대한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전교 1등과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를 지켜본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보며, 문득 매땡캠퍼스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넘은 캠퍼스 건물들은 거의 폐허와 같은 상태였고, 학생들은 마치 교도소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기적처럼 후원교회가 나타나 시설을 하나둘 보수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깨끗한 최신 시설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안에서 맺어진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을 통해 이루실 비전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서의 청소년학사 사역

처음에는 그저 사역들이 놀랍게 열매 맺는 것을 보며 즐겁고 기뻐하기만 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주

님께서는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계획과 비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욕심이 아닌, 평안 가운데 견고하게 이끌어가시는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어린 영혼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전센터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땡청소년학사에서 훈련하고 키운 영혼들을 졸업 후 놓아 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돕고 세우는 일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함께 제자훈련을 하며 주님 안에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돕는 이가 없어 꿈을 접고 미래를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목표 없는 방황, 성급한 결혼,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는 문화적 답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맑은 영혼을 지닌 이 아이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정 형편과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학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형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 중 다수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유혹을 받는 이유 역시, 부모 세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곳 태국 매땡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장학금 지급

▲ 청소년학사 합창 연습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매땡 청소년학사의 사역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사역자의 손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준비된 동역자들이 보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소서.

2. 졸업생들을 위한 비전센터 설립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센터의 위치를 정하는 일과 졸업생과 제자훈련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하소서. 학생들과 사역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3.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역에 더 많은 후원과 참여가 이어지고, 장학사역을 위한 재정이 잘 모이게 하소서.

4. 매땡 청소년학사의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을 이어가며, 방학 중 자신의 마을과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하소서.

5. 시설 확충, 방과후 교실, 장학지원 등 모든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채워지게 하소서.

INTERSERVE KOREA

마음을 잇다, 사랑을 나누다

인터서브 공동체 소식

01/ 신입 선교사 파송

1) 조엘/조이스 선교사 : 4월 29일, 인도
2) 이야기 선교사 : 5월 20일, NEAR 팀

02/ 펠로우 소식

인터서브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어나갈 펠로우님들을 환영합니다.

1) 이세영 펠로우 (목사)
"BAM, 파키스탄 자란왈라 교회학교 개척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2) 이현우(의사)/김자애(주부) 펠로우
"선교사님들과 국내의 다른 인터서브 분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만남과 교제의 기회가 종종 있다면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제 영역에서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나가길 기도합니다.

3) 박도훈 펠로우(사업)

"고국을 떠나 복음이 필요한 타 문화권에 불러주신 그 분의 뜻을 잊지않고,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4) 백인찬 펠로우(직장인)
"장래에 BAM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인터서브에서 BAM이 어떤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보고 알아가보고 싶습니다."

5) 주재훈 펠로우(직장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모금활동을 돕고 싶습니다."

03/ 행사

- 일자 : 5월 8일
- 장소 : 인터서브 본부

어버이날을 맞아, 선교사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4/ 출간 소식

《구멍을 메꾸는 삶과 환대》
양승봉 신경희 선교사 저

네팔과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셨던 두 선교사님의 31년의 여정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한 세계 선교 특강》
김한성, 김상철, 홍문수, 오승수, 이재화, 이상협, 송기태 저

함께 하는 선교 네트워크(함선네)의 4년간의 열매로, 한국 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제19회 선교한국대회

세상의 희망 예수

MissionKorea

2025.08.04 MON
— 08.07 THU

주최 선교한국 2025 조직위원회
장소 사랑의교회 **후원** KWMA

01 신청안내

1차 등록	04.01 - 05.31
2차 등록	06.01 - 06.30
3차 등록	07.01 - 07.31

등록 링크

02 선교한국 2025 강사

고성준 목사 수원하나교회 담임목사
김선교 선교사 다윗의 열쇠 대표
문대원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이길재 선교사 The story 대표
원유경 목사 포드처치 담임목사
주영광 선교사 WEC 사역 팀 리더

03 프로그램

선교부흥회
성경강해
Global Mission Trends
선택강의
선교단체 박람회
다이나믹 배움터
기도합주회

예배팀

ISAIAH 6tyone 아이자야씩스티원

팀룩워십

선교한국 홈페이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롬 15:12

선교한국대회 HOT LINE

이메일 | 2025@missionkorea.org **전화** | 02-563-2468 **인스타** | missionkorea_mk

주소 | 04535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768

선교한국대회 회원단체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56호
2025 Summ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시아와 아랍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제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지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5년 여름호 통권 156호
발행인 공갈렙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5. 6. 2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606-4773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인스타그램** @isv_kor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606-4773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